

# AVENUE

럭셔리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JANUARY 2006



DREAM

2006

〈티 뮤지엄〉의 데이비드 칼번  
부부네 가회동 집 오래된 나무  
문을 열면 아기자기한 한옥의  
살림들이 나타난다.

# Seoul



2

#### profile

20여 년전 런던에서 만난 데이비드 킬번 부부는 현재 〈티 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다. 바쁜 사업 때문에 일년을 런던, 도쿄,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세 도시에는 각각 그 나라 스타일에 맞는 집이 있다고 한다.

### Beauty in Han-Ok

데이비드 킬번 부부가 가회동 한옥에 산 지 올해로 벌써 19년째다. 때로는 선비처럼 고요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처럼 경쾌하다는 그들의 집은 소박한 수목원 같았다.

가회동(嘉會洞). 영국인 데이비드 킬번 부부네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종이에 적어준 한자다.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 있는 마을’ 서울올림픽을 치른 해에 한국을 처음 방문해서 딜럭 구입했으니 이 동네에 들어온 지 벌써 스무 해가 다 돼간다. 굵은 서까래, 마당 한켠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잎 푸른 나무들, 누군가 시를 쓴 흔적이 남아 있는 누마루(양반이 시를 쓰는 방) 등 첫눈에 반할 만한 요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전통 한옥의 형태를 전혀 일그러뜨리지 않은 채 정성스럽게 보관한 주인의 솜씨가 놀라웠다. 게다가 한옥의 지붕 사이로는 서울의 풍경과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이 보이고, 동네 전체에는 맑은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이보다 더 귀한 땅이 어디 있겠는가. “도쿄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을 때 한국문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인사동에 방문했다가 한옥으로 지은 음식점을 보고 감동했어요. 식당 주인에

게 다짜고짜 이 집 내가 사고 싶다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이곳은 영업장이라 팔 수 없다며 대신 가회동의 한옥을 여럿 소개해주더라고요. 네 번째 견학한 집이 바로 여기예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건축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서 바로 계약했죠.” 데이비드 킬번 씨의 얘기다. 1910년~20년대에 지어졌다지만 이 집은 전 주인이 분재를 키우듯 집을 가꿨기 때문에 손댈 곳이 거의 없었다. 연탄보일러를 가스식으로 바꾸고 재래식 부엌을 욕실로 바꾼 것 빼고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다. 물론 지금의 이 집 역시 18년 전과 똑같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인 아내도 한옥에 사는 걸 처음부터 동의했을까.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남편이 가회동 한옥을 샀다가에 난리를 쳤죠. 편하게 살려고 모두들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남편은 거꾸로 불편함을 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나무 마루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스물아홉 살 때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서 남편은 좌식 생활과 이부자리 생활을 하기에 불편해요. 목과 허리를 구부리기가 정말 힘든데도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직까지 침대를 시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한옥에 맞춰 사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집을 둘러봐도 알 수 있다. 봄을 알리는 벚꽃나무, 5월에 피는 작약·수선화·연꽃, 6월에 피는 라일락, 여름



5

6



3  
4



에 피는 능수화, 가을이면 빨갛게 물드는 단풍나무까지, 한국 야생식물을 구하려 다닌 노력 덕분에 작은 마당에는 계절의 흐름이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는 타이거 페인팅이 걸려 있다. 잡기와 불순한 혼을 없애주는 상징인 호랑이 그림을 데이비드 킬번은 인사동에서 처음 발견한 뒤 컬렉팅하기 시작했다고. “전통 가구는 흔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가구의 재료는 재미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하루는 남편이 덩치 큰 가구를 가지고 와서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장롱’이라더군요. 거실에 있는 장식장은 감나무로 만든 거고….”

전통적인 가구와 선반에 놓여 있는 귀여운 소품들을 보고 있으려니 소꿉장난처럼 아기자기한 이들의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요즘 이들은 꽤나 골치 아프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고 있다. ‘한옥’이라는 주거 형태가 갑자기 이슈화되면서 한옥을 빙자해 한몫 보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아름다운 이 마을을 보존하고 한옥을 가꾸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원래 있던 한옥을 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개조한다. 심지어 있던 곳을 헐고 한옥의 걸모습만 어설프게 본떠 나무가 아닌 시멘트로 2층, 3층으로 옮겨버린다. 며칠 전에는 뒷집에서 한옥 개조 공사를 위

해 땅을 파느라 그들 집의 축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데이비드는 콘크리트로 지은 한옥이 웬말이냐며 종로구청에도 여러 번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역사 미관 지역이라는 곳에 뒤틀어진 한옥이 들어서는 게 참으로 신기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은 자기네 땅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는데, 4대문 안의 땅값이 가장 싸다면 몰려오는 이들에게는 그런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문명은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왕이 살던 곳을 지켜야 한다면 서민이 살던 곳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 궁이 있었나를 생각하면 정말 심풀한데….”

그래서 그는 요즘 인터넷에 가회동과 한옥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다. 그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에피소드가 있고 사계절이 있는 그들의 집을 최선을 다해 보존하는 것, 그리고 자연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이 동네가 더 이상 콘크리트로 범벽이 되지 않게 지켜내는 것이다. 데이비드 킬번 부부의 소원대로 외국에서 놀러 온 조카들이 흥아리 속에 들어가면서 숨바꼭질하는 이 집의 마당에, 자연의 하모니로 오케스트라 같다는 이 집에 오후의 낮잠 같은 기분 좋은 나른함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

1 거실에서 차를 즐기는 데이비드 킬번 부부, 2 가회동 골목에서 바라 본 서울의 풍경. 이 멋진 뷰는 이들이 가회동을 떠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3·4 침실. 침대 사용이 훨씬 편하지만 한옥에 어울리지 않다고 하여 20년 동안 일부자리 생활을 하고 있다. 5 콘크리트와 벽돌로 짓고 있는 요즘의 한옥. 6 김기덕 영화 〈빈집〉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이 집의 거실. 실제 이 집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졌다. 7 마당 한쪽에서 그들은 금붕어를 기르고 있다. 8·9 인사동, 황학동 등지에서 산 한국적인 소품들. 이런 모형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 Seoul